

『그리스도인을 위한 경제학』

이재율(2009), 계명대학출판부

이윤재(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합당한 경제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저서를 출간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저자의 친구인 목회자가 경제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의외로 부족함을 보고 목회현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집필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본서는 총1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부인 제1장에서 3장까지는 경제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제1장에선 성경의 세계관을 소개하면서 경제학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즉, 성경의 기본 구조인 창조, 타락과 심판, 그리고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세속적인 경제(윌리)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기본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성경적인 경제원칙을 일찍이 소개한 D. Hay (전강수 역, “현대경제학과 청지기 윤리”로 번역됨)을 참조하여 두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실증적 경제원칙과 규범적 경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실증적 원칙으로는 희소성의 원칙(창 1:17에 기초), 인간의 이기성과 부분적 이타성, 노동의 사명과 고통을 성경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성경적인 경제의 기본원리(실증적 경제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규범적 원칙으로는 인간만족 보다는 하나님 만족 우선, 청지기 사명, 청지기 권리, 자연보존 등 4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경제행위 원리와 경제생활 실천을 상기의 3 원칙과 4가지 규범 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제생활의 나침반 역할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선

의미 있는 일이다.

후반부인 제4장의 “가계의 소비생활”부터 제9장 “일과 여가”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성경적인 경제생활—소비, 기업의 생산 활동, 환경오염에 대응, 돈(소득)과 재산 관리, 여가 및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장마다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설명하고 성격의 원리에 견주어 어떤 경제생활(행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장부터는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인 경제활동을 설명하고 있어 개인, 사회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의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좀 아쉽다면 이제는 성경경제학(biblical economics)에 관해 좀 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서가 출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거 (약 10~20년 전)에 비하면 성경경제학(biblical economics)에 관한 서적들이 제법 많이 출간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이 규범적 경제학 접근에 가까운 저서들이다. 그리고 저자가 앞부분에서 제시한 성경의 세계관 (3가지 원리 + 4가지 규범)과 세속의 경제학(혹은 경제행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이나 분석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다소피상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규범적 원리에 대해 언급한 저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실증적 경제원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창조, 타락, 구원의 프레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엄정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나타내듯이 일반 그리스도인을 위한 바람직한 경제생활에는 많은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서적이라 일독을 권한다.